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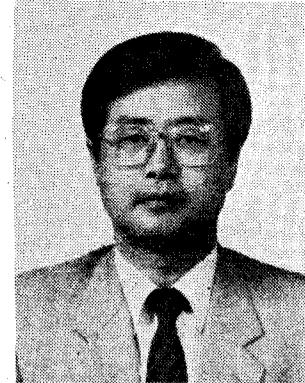
糖尿病의概要

많은 血中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와

1. 당뇨병이란?

당뇨병이란 당(糖)이 뇌(尿: 오줌)에 나오는 병(病)이다. 여기서 당이란 포도당을 이야기하는데, 포도당은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이나 보리의 기본 구성성분이 되는 탄수화물이고,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우리 몸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소변에 나온 것이다. 포도당은 보통 정상 사람의 혈액 속에도 10~12시간 공복을 시키고 나면 70~115 mg/dl정도 있고, 사람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당뇨병이 되면 이 혈중 포도당이 140mg/dl 이상(공복시)으로 심히 올라가고, 결국 지나치게 많은 혈중 포도당이 흥수가지듯 소변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이 소변의 당은 검사지를 담궈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혈중 포도당의 측정도 요즈음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당뇨병은 그래서 고혈당(혈



李弘揆

[서울의대]
내과 교수

증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음)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병이 생기는가를 근래 잘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혈당을 정상적으로 조절해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무슨 이유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체장의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리우는 조그마한 조직에서 혈중으로 분비되고 51개의 아미노산으로된 단백질이다. 이것은 보통 혈중에서 적당한 양이 있어서 혈중 포도당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절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하여 혈당이 높아지면 체장에서 더 많이 나와 혈당을 내리고, 음식을 며칠간 안 먹으면 농도가 내려가면서 몸에 혈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결국 인슐린이 모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사람에서 그 원인이 되는 인슐린이 왜 모자라게 되는지는 최근 엄청난 돈을 들여 연구한 바, 그 복잡한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풀이하면

하나는 특수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을 받으면, 체장의 염증이 만성화하여 기능을 잃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워낙 어떤 사람들은 인슐린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장의 기능이 조금만 늘어버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모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흔히 비만증, 과식,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약물 등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인슐린을 만드는 체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에서는 인슐린의 필요량이 많은 것이다.

2. 당뇨병은 왜 병인가?

혈중 포도당이 높다는 것이 '병'인 이유는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은 조만간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당뇨병환자는 혈중포도당이

기는 등(산혈증은 혈액의 산도가 아주 심히 낮아지는 경우다), 생명에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런 경우는 '급성(대사성)합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에는 인슐린을 쓰면 쉬 좋아질 수 있다.

1921년 벤텁과 베스트 등에 의하여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급성(대사성)합병증'으로 죽어갔다. 그래서 이분들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인슐린을 쓰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인슐린의 존형 당뇨병"이라 부르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심한 종류의 당뇨병이고, 어린 나이에 급히 생기는 편이다. 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 특수한 체질을 가진 사람에서 바이러스가 침범하여 생긴다고 한다.

이런 형태의 당뇨병도 소위 인슐린의 저항증을 위주로하는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과 대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은 어린이 된 후 실명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콩팥의 합병증은 혈액투석을 하거나 공팔이식을 하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신경합병증은 가장 골치아픈 것으로 소화장애, 설사/변비, 하지감각 이상 등으로 부터 하지의 절단에 이르는 흔한 원인이 되고 있고, 당뇨병에서는 중풍이나 심장병도 흔하다. 이러한 큰 혈관들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당뇨병에 나타나는 지방질대사의 이상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당뇨병의 대혈관장애라고 불러서 3대 합병증을 일으키는 미소혈관장애와 비교하고 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당뇨병의 관리만 제대로 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수많은 당뇨인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

3. 당뇨병의 치료는 불완전하다.



◆당뇨병의 치료는 그 원인이 체장의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체장기능을 되돌려주는 것이 완치의 길이다.(사진은 본문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조가 되는데, 이런 형태의 병은 좀더 나이가 든 후, 때로는 별 증상도 없이 서서히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혈당이 높은 것은 동일하고, 심하면 체중이 줄고,

당뇨병의 치료는 그 원인이 체장의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체장기능을 되돌려주는 것이 완치의 길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방도는 체장의 이식밖에는 없으며, 체장의 이식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의사들은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슐린 주사를 주면서, 식사를 조정하고,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의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는가를 관찰하고, 환자가 하여야 할 여러 행동지침을 가르치면서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완치가 되지 않지만, 관리는 가능한 만성병은 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외과적인 병들과 달리 환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래서 환자의 병에 대한 이해, 식사에 대한 이해, 약이나 주사에 대한 이해 등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 「눈·콩팥·신경」

체중감소·소양감·多尿·多食의 증상 完治는 되지 않지만 관리는 가능하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사람에서 그 원인이 되는 인슐린이 왜 모자라게 되는지는 최근 엄청난 돈을 들여 연구한 바, 그 복잡한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풀이하면

멀쩡하면 조직이 흐물흐물 망가지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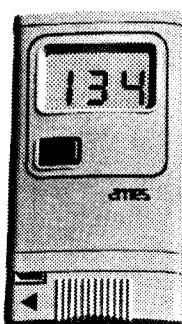
한편 심한 당뇨병에서는 고

혈당이 아주 심하여지고, 더욱 심하면 소위 '산혈증' 등이 생

쇠약감을 느끼고,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며, 먹을 수록 허기 가지는 증상들을 보이는 수가 많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앞서 이야기한 만성 합병증들이 생겨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10만원대 혈당측정기

혈당측정기의 세계적 권위 미국의
에임스가 사용이 더욱 간편해진
글루코메타GX를 선보입니다.



고기능 저가격의
글루코메타GX

-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
- 광전시계에 의한 완벽한 측정.
- 10회분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 반영구적인 수명.
- 휴대가 간편한 담배크기.
- 기능과 성능에서 비교될 수 없는 가격 16만원.

글루코메타GX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 혈액의 고혈당은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팔다리의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아종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과 배뇨가 곤란하다.

이와같은 당뇨성신경장애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로 손상된 신경조직이 살아납니다

- 대량의 비타민 B群은 인슐린의 생성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부활작용도 우수하여 최근 당뇨성 신경장애, 망막증, 신증, 기타소모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그 약효가 입증되었습니다.
- 손상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단위 약효도 다행입니다.

벤포티아민..... 69.15mg
염산 파리독신..... 50mg
시아노코발라민..... 500 µg

당뇨성신경장애, 신경통, 기타소모성질환 치료제

®
비타메진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슐 22,000원